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4

# 분단 기억의 이중적 소환과 가족의 구성
## -김원일의 『노을』을 중심으로-

마 혜 정*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김원일의 『노을』을 중심으로 가족 서사적 특성과 분단 기억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중적 기억 층위의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 작가는 『노을』에서 소년 시점을 활용해 혈연과 이념을 분리함으로써 아버지를 소환하고 서사적 현재의 공간에 그의 이름을 복원시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상황에서 통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킨다. 소년 화자에게서만 발화되는 '빨갱이'와 '백정'이라는 언표, '자유를 사랑하는' '한 형제'인 '공산주의자', 그리고 '핏줄로서의' 아버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성인 화자가 당초 드러내지 못했던 '빨갱이' 아버지라는 억압의 정체, 즉 반기억을 가리기 위해 자리바꿈한 형상들이다. 이렇게 소년 시점에서 진행되는 2·4·6장 역시 통용기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밑면에 자리한 심층기억의 형태는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실마리가 소년 갑수가 '빨갱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포석되어 있던 사실에 있다고 보았다. 소년 갑수는 가족의 완전체를 꿈꾸며 '빨갱이 짓'을 가족의 해체와 동의어로 삼는데, 이 같은 소년의 시점은 현실 사회의 억압 기제인 이념 대립을 무화시킬 유일한 도구로 가족을 설정하고 있는 성인 갑수 의식의 은유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갑수의 가족애는 작가 의지의 상상적 재현이면서 작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애를 통해 모든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으려던 갑수의 의지는 결국 가족을 보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배 이데올로기를 무기 삼음으로써 가족애 자체의 가치 몰락을 야기한다. 이는 노인 배도수가 부여받은 가치의 비중에 의해 뒷받침된다. 갑수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적 전형이 배도수의 현재 삶에 현시됨으로써 배도수는 갑수의 상징적 아버지가 되고 갑수의 아버지는 다시 한 번 그의 자리를 잃는다. 결국 '핏줄로서의' 아버지는 소환되었을 뿐 복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작 복원된 것은 아버지의 자리일 뿐이다.

주제어: 김원일, 노을, 분단 기억, 가족, 가족애, 통용기억, 심층기억

목차

1. 서론
2. 집합기억에의 자각과 아버지서사의 통용기억화 과정
3. 애어른의 배타적 가족 구원을 통한 심층기억의 각성
4. 새아버지 추대에 의한 심층기억과 통용기억 간 길항
5. 결론

# 1. 서론

김원일의 1977년 작인 『노을』[1] 은 분단에 대한 인식 초기에 쓰인 「어둠의 혼」에서 착상했던 소년 내면의 의문과 공포감에 대한 해명의 여지를 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노을』을 통해 어린 영혼에 깊숙이 각인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근

1) 김원일, 「노을」, 『제삼세대한국문학6. 김원일』, 삼성출판사, 1983. (『노을』은 1977년 『현대문학』에 연재된 작품으로 이듬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다. 김원일은 이 작품으로 제4회 한국소설문학상 및 제4회 반공문학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글에서는 1983년 출간된 삼성출판사의 선집을 기본 자료로 활용했다. 이후 부분 인용은 끝에 면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원을 확인하고 정면에서 맞서는 데서 찾아질 수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귀향의 구조와 시점의 교차를 형상화 방식으로 활용한다.[2] 그로써 김원일의 소설사 차원에서는, 비극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어둠의 혼」에 비해 『노을』은 시점 교차 서술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고 분단 현실을 각성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 극복을 전망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3] 『노을』을 '기억의 여행'[4]으로 보고 과거와 현재의 상호 의식적 영향과 기억의 재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된 바 있다. 회고적 시점을 통해 서술됨으로써 과거의 사건이 화석화되지 않고 현재 의식에 어떤 힘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의식변화의 심리적 근거가 된다거나[5] 어린 시절이 어른 '나'의 입장에서 반추됨으로써 현재적인 상황의 이해와 해석의 조명을 받는다고 설명한다.[6] 소년 화자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2,4,6장을 성인 화자 시점의 1,3,5,7장에 포섭된 회상적 서사로 보기도 한다.[7] 시점의 교차를 통한 회상 기억의 재현이

2)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483면. 그 외 김병익과 오생근도 전쟁 비극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작가의 문학적 성가를 높인 소설로 평가한다.(김병익, 「비극의 각성과 수용」, 『제삼세대한국문학6. 김원일』, 삼성출판사, 1983, 438면; 오생근, 「분단문학의 확장과 현실 인식의 심화」,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 2002, 106~7면) 그러나 김태현의 경우, "상처 깊은 역사적 사건과의 만남을 적극 시도하려는 건강한 의도를 애초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극복의 감동적인 만남을 독자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김태현, 「반공문학의 양상」, 『그리움의 비평』, 민음사, 1991, 89~104면 참조)

3)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상력』, 태학사, 1999, 151~6면 참조.

4) 홍정선, 「기억의 굴레를 벗는 통과 제의」,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 2002, 171면.

5) 권오룡, 「개인의 성장과 역사의 공동체화」, 위의 책, 94~95면.

6) 오생근, 「분단 문학의 확장과 현실 인식의 심화」, 위의 책, 107면.

7) 양진오, 「좌익의 인간화, 그 문학적 방식과 의미」, 『우리말글35』, 우리말글학회, 2005, 276면. 양진오는 서술자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좌익의 인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당대 반공주의가 강요하는 좌익에 대한 공적 기억과는 다르게 아버지를 희생자로 떠올림으로써 반공주의의 왜곡을 일정하게 교정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정재림의 논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밝히는 논의들로 소년의 행동이 온전하게 소년답기보다 성인세계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행동이며 그로써 작가의 의도를 은밀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선행연구에 기대어 『노을』이 갖는 기억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자 이중적 기억 층위의 개념을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적용해보고 그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가족 구성의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성인 화자의 내면에 은폐된 기억 소환의 원리가 가족이라는 집단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작동되는 기억 정치의 일면과 접합하는 김원일 식의 가족주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층위로 분리되는 기억의 성질과 의미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프로이트는 '늑대인간'의 꿈을 해석하며 '사후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서 원초적 기억이란 그대로 저장되거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사건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억과 망각의 메커니즘 또한 사후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의미로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의 상황과 내적 욕구에 따라 수정된 채 재구성되며 따라서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사후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8] 이러한 원초적 기억과 사후

---

다. 삼촌의 별세를 계기로 귀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여행이며 아버지 복원의 과정에서 당대의 공적 기억이 강요하는 대로 좌익이데올로기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정재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박사, 2006, 34~46면) 양진오는 기억 내용의 의미 차원에서 공적 기억에 대한 저항을, 정재림은 기억 방식의 차원에서 공적 기억의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을』이 담지하고 있는 기억의 기제와 방식이 문제적임을 보여주는 논의들이라 하겠다.

8) 프로이트, 김명희 역, 『늑대인간』, 열린책들, 1996, 194~5면 참조. 프로이트의 기억 이론의 의미에 관해서는 김현진의 글 참조(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05~216면).

에 정리된 기억의 두 차원에 대해 랑거는 '심층기억'과 '통용기억'으로 구분해 설명한다.[9]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심층기억의 문제와 달리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통용기억은, 따라서 현재의 필요에 의해 어떤 부분은 강조되거나 억압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노을』에 나타나는 기억 차원의 이중성을 다루기에 유효한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억 주체인 성인 화자의 내적 의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장치로 설명 가능하다. 소년 시점을 빌려 사건을 서술하지만 이면에 있는 기억 주체가 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자의 내면의식을 조정하고 현재 이데올로기와 양립할 수 있는 서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를 따른다면 『노을』에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통용기억의 형상들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노을』의 기억 방식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체의 내적 욕망과 더불어 랑거가 말한 현재의 필요라는

9) 문예학자 랑거는 아우슈비츠의 기억 구술 현장에서 구술자들이 생성하는 다양한 기억들을 deep memory, common memory, anguished memory, humiliated memory, tainted memory 등으로 명명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자아의식을 의미화하고 있다. 심층기억과 통용기억의 분리 현상은 한 가지 기억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보여준다. "Deep memory tries to recall the Auschwitz self as it was then; common memory has a dual function : it restores the self to its normal pre- and postcamp routines but also offers detached portraits from the vantage point of today of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hen. Deep memory thus suspects and depends on common memory, knowing what common memory cannot know but tries nonetheless to express."(Lawrence L. Langer, *Holocaust Testimonies-The ruins of Memory*, Yale University Press, 1991, 6면) 관련한 해석은 권귀숙의 글 참조(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34~38면) 랑거는 증언자들이 심층기억과 통용기억을 오가며 진술하다가 그 사이에 생긴 마찰로 자아의 분리에까지 이른다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심층기억과 통용기억의 개념을 빌리는 선에서 그친다. 『노을』의 화자는 시점의 분리에 그칠 뿐 전적으로 성인 화자를 기억 주체로 의도된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 지배이데올로기의 호출로 성립되고 있어서 이중의 기억 방식이 내부에서 교묘하게 엇갈리며 주체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용기억과 심층기억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언급했듯이 작품 자체의 의미를 덧붙이는 일이면서 나아가 소설 작업을 통해 펼치는 작가의 기억정치를 해석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먼저 드러나는 서사가 왜 통용기억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해 논의한 후 드러나지 않는 심층기억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 『노을』만이 갖는 기억 방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 2. 집합기억에의 자각과 아버지서사의 통용기억화 과정

성인 화자 갑수의 기억 여행은 삼촌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계기로 시작된다. 전보를 읽은 순간, 갑수는 '마른 핏빛 노을'의 이미지를 읽어내고 그날 밤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꿈을 꾼다. 그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 갖는 억압의 감정과 현재적 상황의 상이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으로 그의 의식 속에 불현듯 내침하는 1948년의 기억은 현재의 안락을 상대적으로 들여다보게 함과 동시에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온다. 그는 현재 우민출판사의 편집부장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세상 눈치나 보며 살아오는 데 주눅이' 들어 '시키는 말이나 고분고분 듣'고 '자기 안존에만' 관심을 둔 '소시민'이며 앙드레 말로의 회상록을 편집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자발적인 순종 상태에 있으므로 정치사회적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삼촌의 별세를 알리는 전보를 받으면서 귀향을 통한 '기억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은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지시되는 공동체 기

억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 "누가 뭐랬나. 그러나 이미 삼십 년이 다 된 얘기 아냐. 사실 내려간대도 고향엔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 같은 놈한테 고향은 무슨 개떡 같은 고향이 있다구. 임자도 쓸데없는 걱정만 하다가 다 늙겠군."(12면, 강조는 필자)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현재로서는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함축적 언표이다. 동시에 그것은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고향을 기억의 장소로 상징화함으로써 귀향의 행위 자체에 기억적 의미를 부여한다. 귀향은 이처럼 같은 시공간을 경험한 '아는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하며 이는 망각하고 있던 집합기억을 각성해 가는 과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향은 여타의 사회적 집단과 구별되는 기억의 공간적 틀을 이루고 그곳에서 만나는 '아는 사람', 즉 삼촌과 추서방, 숙모, 갑득, 오영감, 물금댁 등은 같은 기억의 공유자이며 화자의 어릴 때와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화자의 기억을 증빙하거나 보조하며 회상의 토대를 공고히 한다.[10] 고향사람들과의 공통적 시각을 취함으로써 갑수의 기억은 되살아나고 동시에 고향이라는 '기억의 사회적 틀'은 갑수라는 한 개인의 고백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현실화하면서 집합기억을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11] 이를 통

10)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6』,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576~7면. 알박스에 따르면 집합기억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 시공간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갖게 된 기억의 공통된 토대를 말한다. 개인 기억의 존립과 재생은 사회적 틀을 전제로 한다. 그는 집합기억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먼저 성립 과정 차원에서 타인들이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기억을 촉발하거나 그 기억의 형성과 보존에 관여한다는 것과 내용 차원에서 집단 성원들이 같은 경험을 겪음으로써 같은 내용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11) 김영범, 위의 글, 575면.

해 갑수는 본래 집단으로부터 공유하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돌려받는다. '나'는 백정 아버지를 둔 백정 자식이며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쓸쓸함'과 '열등감'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눙쳐' 놓고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고향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다. 그래서 서사의 초반, 갑수는 '고향에만 오면 안개같이 나를 휘감는 비애와 부끄러움'을 말하고 그러한 감정의 근원으로 자신이 '백정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갑수의 정체성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온전한 정체성의 회복은 고향에서의 시간이 내포한 정치사회적 차원의 각성이 있은 후로 지연된다.

갑수는 이후 '치모'와의 만남으로 당시 좌익활동을 했던 배도수와 이중달을 떠올리고 그들을 뒤따라 좌익이 되었던 아버지에 대해 고백한다. 소년 시점에서 진행되는 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사적 형상의 공간이다. 소년은 아버지를 애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질하고 자신과 동생을 굶기면서까지 '내 자식이라고 움켜 안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다. 그러다 배도수와 장태문, 이중달과 함께 하면서부터 '빨갱이'가 되고 '사람을 소잡듯이' 죽이는 '개잡늠'이 되었음을 소년 시점의 순진성에 기대어 설명한다. 동시에 성인 갑수의 시점에서도 백정임을 내세워 언급을 꺼렸던 아버지의 좌익 활동 경력을 에둘러 이야기한다. 몇 달 전 배도수의 소개로 재일동포 진필제의 원고 출판을 부탁받은 일로 끌려가 심문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배도수의 이력이나 진필제의 의도 때문에 겪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적어도 갑수의 심중은 아버지의 활동과 관련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 그런 소심한 위인이다 보니 나는 그저 처자식이나 열심히 먹여 살리는, 건실하다면 건실한 소시민인 셈이었다. 그런데

> 형사가 다녀갔다니, (중략) 평소에도 나는 그 얼굴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던가. 아니, 나는 그 얼굴을 늘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핏줄로서의 연민은 느끼면서도 잊으려 노력해 온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79~80면)

성인 갑수의 고백에 따르면 현재 '긴급조치가 발표되고 있는 이판'의 분위기를 넘어서는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의 이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함안 작대산 부근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에 계속되는 의구심에 시달리며 좌익의 가족이라는 숨겨왔던 정체성을 들킨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떤다. 전쟁 이후 남한 사회가 철저하게 부인하고 망각을 시도함에 따라 적어도 상징적 죽음[12] 상태에 있는 아버지는 현재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상충하는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호명하고 기억 속에서나마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한 행위이므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가게 된 '정보과'에서 그는 여일하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과거와 현재의 일상을 체험하고 국가폭력의 힘과 공포를 자각하기에 이른다. 자발적인 순종 의식 이면에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적 특이성에 대해 각성하는 순간, 갑수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혈연적 유물과 그것을 변함없이 조장해오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귀향의 형식을 내세운 갑수의 기억여행은 이처럼 표층적 차원에서 집합기억의 회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재 소시민의 일상을 규율하는 정치사회적 이념 층위의 폭력성에 대한 자각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소시민에 머물던 인물로 하여금 건강한 자아로서 설 수 있는 정치적 지평을 탐색할 기회를 찾는 각성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심층의 의미를 찾을

12) 박찬효, 「김원일의 『노을』에 나타난 '죽은' 아버지의 귀환과 이중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44면.

수 있다.

이렇게 갑수 스스로는 물론 이념적 차원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행위로 간주된다면 갑수가 아버지를 호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작가가 『노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떼어놓는 방식을 활용한다. 소년의 시점은 이데올로기 차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인 갑수는 인식의 범위를 벗어난 혈연을 강조한다.[13] 이를 연구자들은, 백정이었던 아버지를 근대적 자기보존과 반봉건적 의지로 가득 찬 봉건적 질곡하의 하층민으로 의미화 함으로써, 배제되었던 좌익을 근대화의 발전 욕망으로 전환하여 포용한다거나[14] 반공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인간적 측면을 부각하고 가련한 희생자로 기억함으로써 좌익의 인간화를 시도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15] 혈연과 이념을 분리한 내적 형식은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다층적 해석의 여지를 주기도 한다. 창작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가의 무의식적 장치를 읽어내려는 다양한 접근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통용기억화의 과정 또한 이러한 접근

---

13) 정호웅, 「분단 극복의 새로운 넘어섬을 위하여」,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94면.
홍정선, 앞의 글, 172면. "김원일의 『노을』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사람들의 모습과 그 후유증의 치유 방식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지 이데올로기 자체를 다루고 있는 소설은 아니다."
김윤식, 「문학사적 개입과 논리적 개입」, 『문학과 사회』 겨울호, 문학과 지성사, 1991, 1512면. "『노을』의 작가가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 백정의 의식화 과정도 아니며 시대성에 대한 인식과는 더더구나 거리가 멀다. …… 요컨대 자식이 아비의 죄를 용서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점을 『노을』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14) 차혜영, 앞의 글, 65면.
15) 박찬효, 앞의 글, 345면 ; 양진오, 앞의 글, 290면.

의 한 방식이 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통용기억이란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는 반성적 기억이다.[1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광적인 도취 끝에 끝내 파멸을 자초하고 만 아버지의 끝막음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성인 갑수의 의지에 따라 서사화한 2,4,6장에서 소년 갑수가 사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 즉 '빨갱이'는 당대의 헤게모니가 소년에게 세뇌시킨 파벌적 언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자장 안에서 허용되는, 좌익에의 환멸감을 응축시킨 단어라 할 수 있다. 기억의 형상화 과정에서 소년 시점의 순진성을 빌어 얻고자 했던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앎이 없으리라 여겨지는 소년이기에 가능한 원색적 비난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의 사용을 소년의 시점에만 가두어 한정함으로써 성인 갑수는 아버지에 대한 칭호의 문제에서 최소한의 윤리적 경계를 넘지 않게 된다.

> 오추골 고추대장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오추골 고추대장과 친하다니. 그러자 고추대장 이중달씨의 작달막한 몸체는 물론, 우람한 아버지의 몸마저 금새 내 눈에 허깨비로 변하여 닭벼슬처럼 온통 붉게 보였다. 빨갱이다. 고추대장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마저 빨갱이가 되어, 빨갱이 두 마리가 내려오고 있다. 나는 나를 향해 귀엣말로 속삭여 주었다.(49~50면)

소년 갑수는 스스로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망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나 소련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삼팔선이 생겼다는 어른 말에 수긍'하며 '반 아이들이 꿈에도 갖지 못할 판단'력을 가진 것을 '뽐내'지만 '좌익 운동'을 하는 '배도수'

16) 권귀숙, 앞의 책, 37면.

와 '이중달'에 대해 이유 없이 '무시무시한' '흉계'를 꾸미는 '무서븐'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용에서처럼 그들과 어울리는 아버지를 '온통 붉게' 변한 '빨갱이'로 본다. 또한 아버지는 '고뿔 같은 한기로 내 마음을 떨게' 하는 '두려움'과 동일한 것이 된다. 반면, 성인 갑수에게서 '빨갱이'라는 호칭은 결코 발화되지 않는데,[17] 이 때문에 이를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공적 기억에의 동조이면서 동시에 대립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조와 대립이라는 상반된 이 같은 현상은 기억 주체의 이중적 의지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작가의 기억 정치를 근원으로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빨갱이' 칭호의 기억은 현재의 삶을 잣대로 하는 통용기억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갑수의 회상을 통한 작가의 의도적 기억 정치란 통용기억을 전면화함으로써 이면의 반기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있다.[18]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드러낼 것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19] 성인 갑수가 줄곧 자신이 백정의 핏줄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 또한 같은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백정이라는 말로써 신분적 질곡의 기억을 소환하는 듯하지만 거기에는 광폭한 이미지로 화석화된 백정이면서 그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는 이데올로기적 아버

17) 성인 갑수는 아들 현구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며 '공산당, 공산주의자'(162면)로 지칭하는 게 전부다. 갑득이나 오영감이 '빨갱이'(171면)로, 소년 갑수의 시점인 2,4,6장에서 윤주임, 삼촌이 '빨치산'(121면), '빨갱이'(125면)로 지칭한다.

18)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186면. 패자와 억압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공식적 반기억은 공적 기억에 의해 비판적으로 전복된 기능기억으로 억압적이라고 여겨진 권력 구도의 정통성 소멸을 모티프로 한다. 정통성과 권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적 기억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권력의 소멸 이후 선택되고 보존되는 기억은 미래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 비슷한 의미로 푸코의 '대항기억(Counter Memory)'이 있다.

19) 이를 박찬효는 표면적 서사에서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면서 심층적 서사에서는 아버지를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전략이 숨은 것으로 해석한다.(박찬효, 앞의 글, 245~52면)

지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20] 특히 백정은 그 자체로 상징적 권위의 질서에서 배제된 한 남성의 위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표이며 그 시대의 공포와 불안이 투사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좌익의 부정성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로써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21]

그러나 갑수는 소년을 통한 기억과 백정의 언표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백정 아버지의 기억을 '공산주의자' 아버지로, 다시 '핏줄로서의' 아버지로 변환시켜 소환한다.

> ① "아무 시대나 둘로 쪼개질 패는 다들 자기 쪽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법이지. (중략) 그런데 현구야, 공산당이 나쁘다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고 핏줄이야. 다만 그들이 저면 공산주의 땅에 떨어져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 저면 백성들도 마음 속으로는 깊이깊이 자유를 사랑하고 있는 거란다. (중략)"(162~163면)
>
> ② 내 아들은 델고 가야 됨더, 그래서 북조선에서 정말 씩씩한 혁명가로 키우고 싶심더, (중략) 무식쟁이 내 같은 빨치산 말고 배동무나 장동무같이 똑똑한 인물로 키워서 진짜 인민의 영웅을 만들고 싶단 말임더, 아버지가 대단한 결심이라도 했다는 듯 둘러선 무리들을 보며 외쳤다.(250면)
>
> ③ 퇴로를 뚫어 다른 동료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마지막 남은 두 명이 전경대에 포위되어 대치하자, 한 명은 이미 싸움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손을 들어 포로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품고 다니던 소 잡던 칼로 스스로의 목을 찔러 자결했다는 것이었다.(256면)

---

20) 최영자는 한국전쟁과 좌익이데올로기로 인한 아버지의 폭력성의 은유가 '백정'이라는 기표로 상징화되었다고 본다.(최영자, 「권력담론 희생자로서의 아버지 복원하기」, 『우리문학연구34』, 우리문학회, 2011, 415면)

21) 박찬효, 앞의 글, 246면.

④ 어떤 때는 미류나무의 그 많은 잎새가 바람을 타며 풍금 소리처럼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미류나무 아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버지가 나타나 가랑가랑 들려주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갑수야, 마 잊아뿌리라. 그 옛날 이바구는 잊아뿌리고 살거라. 자슥새끼한테는 숨카뿔고, 남은 평생을 없던 이바구로 알고, 그래 살아라 말이다.” 사나운 짐승 같던 아버지도 꿈속에서 죽을 때는 늘 그렇게 약해져 내 손을 잡고 애원하는 것이었다.(163면)

위의 인용 ①은 성인 갑수가 아들 현구에게 할아버지에 관해 ‘백정질’을 했다는 사실은 빼고 설명하는 대목이다.[22] 여기서 갑수는 비록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의 선에서 그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멸시의 언어로써 아버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하게 현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교정해 주고자 시도한다. 여일한 정치사회적 이념의 자장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자기 각성 이후 현재적 삶에 통용되거나 되지 않는 기억의 이중적 층위를 가려내고 있는 갑수로서는 왜곡된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자신이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듯 적어도 현구로 하여금 어느 ‘입장에’ 설지 판단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현구는 물론 소년 갑수에게 ‘유별난 어떤 종족’이었던 좌익은 ‘저쪽’ 땅에 살 뿐, ‘자유를 사랑하는’ ‘한 형제’인 ‘공산주의자’로 다시 정의된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들을 모두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갑수의 현재 상황을 돌이킬 때, 이는 현구보다 오히려 소년 갑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가까울 것이다. 인용 ②

22) 정주아는 할아버지가 백정이었다는 사실을 감춘 채 현구에게 설명하는 것을 갑수의 기억 전달자로서의 위치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인간 백정’으로서 무차별한 살인을 일삼았던 아버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이며 갑수에게 살인 행위 자체는 더 이상 공론화의 여지가 없는 것인 반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기시되고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본다.(정주아,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기억 방식 연구』, 서울대석사, 2005. 52면)

는 좌익들의 '봉기'가 실패하고 산속으로 숨어든 뒤 잔류와 북상을 놓고 논의할 때, 아버지가 갑수의 '손을 꽉 잡고' 무리들에게 아들을 같이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자식에 대한 부성애와 함께 '씩씩한 혁명가'나 '진짜 인민의 영웅'이라는 말에서 아버지의 의식의 성장을 읽을 수 있다. 인용 ③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각별한 신념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단지 광폭한 백정이나 좌익의 '칼잽이' 하수인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고 있는 모습을 첨언한 것은 '고정관념' 속 '두려움'의 대상인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자유를 사랑하는' '한 형제'로 재설정한 이후이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신념 있는 사회주의자의 모습은 노인 배도수의 언행으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한다.[23] 따라서 또 다른 의미로의 이행이 필요한데, 인용 ④에서 보듯 꿈에 죽어가는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숨기고 잊어버릴 것을 당부하며 '악독한 공산주의자'에서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로 변화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순수한 아버지 그대로의 모습에서는 죄의식의 일면까지도 엿보인다. 이 부분은 실제 서사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갑수 스스로 꿈을 빌려 현시한 은폐 기억[24]으로 아버지 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면

23) 노인 배도수가 갑수의 출판사에 나타나 자기 과거를 회의하고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배도수는 1948년, 갑수 아버지를 포함한 무리들의 좌익 봉기 당시 배후로서 그 집단의 대장격이었으나 봉기 실패 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 활동을 하다 민단으로 전향한 뒤 다시 고향 과수원에 안착해 여생을 보내고 있다. 배도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기로 한다.

24) 억압된 기억이 현시될 때 꿈의 작업에서처럼 자리바꿈의 과정을 거쳐 기억되는데, 이를 은폐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된 내용, 즉 '은폐 기억'은 꿈에서 억압된 무의식 내용인 '잠재적인 꿈-사고'를 대신해 나타나는 '현시적(외현적) 꿈-내용'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사소한 기억들은 전위의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그 기억들은 기억 재생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다른 인상들을 대체한 것들이다. 사소한 기억들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억압된 내용과 맺고 있는 연상 관계에 의해 보존된다. 은폐 기억과 그것에 의해 은폐되는 내용 간의 연대기적 관계에 따라 퇴행성, 전향성, 통시성 은폐 기억으

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위로의 말이다. 그래야만 갑수는 스스로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외적인 방해 없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가진 사람,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수의 꿈을, 훼손 없는 자아 보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25]

백정과 빨갱이를 같은 이름값의 아버지로 보았을 때, 현재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용인하는 공적 기억 안에서 회상될 수 있는 것은 백정 아버지였으나 성인 갑수는 이를 자유를 사랑하는 '공산주의자'로, 다시 죄의식을 내비치는 순수한 아버지로 환언한다. 이는 당초 드러내지 못했던 '빨갱이' 아버지라는 억압의 정체, 즉 반기억을 가리기 위해 자리바꿈한 형상들이다. 특히 지배담론에 가장 크게 대립될 '자유를 사랑하는' '한 형제'인 '공산주의자'로의 의미부여는 통용기억화 과정의 역동성을 보여주지만 곧 '핏줄로서의' 아버지로 환언하면서 그 반동을 줄여야만 했다. 여기서 기억된 내용이 말해주는 것은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의 현재적 상황[26]임을 뜻하는 통용기억의 의미를 다시 상기할 수 있다. 기억 주체의 현재는 통용기억화의 방식을 활용해야만 아버지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으며 동시에 통용기억화하기 전의 모습은 결코 현재에 틈입해서는 안 될 종류의 것임을 뜻한다. 갑수의 기억 방식이 두 층위로 나뉘어야 할 이유이다.

---

로 나뉜다.(프로이트, 이한우 역,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은폐 기억들」,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 열린책들, 2003, 65~66면 참조 ; 김현진, 앞의 글, 206면) 갑수의 꿈은 사죄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형상으로 '사람 잡는' 인간 백정이었던 '빨갱이' 아버지를 은폐하려는 소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정재림은 이를 '자기 보존을 위한 자아의 외침'으로 설명한다.(정재림, 앞의 글, 45면)

26) 김현진, 앞의 글, 227면.

## 3. 애어른의 배타적 가족 구원을 통한 심층기억의 각성

앞에서 성인 갑수가 현재 상황에서 용인되고 수용되는 형태로 아버지의 기억을 소환하는 일련의 흐름을 통용기억화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핏줄로서의 아버지'는 숨겨야만 했던 아버지 기억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통용기억화의 방법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은 곧 공적 기억 이면의 반기억을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와 상통한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성인 시점의 서사에 포섭된 소년 시점의 2·4·6장 역시 통용기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소년 갑수는 왜 아버지가 좌익 거사의 전위적 주체로 나서게 되었는지, 특히 그의 분노가 백정 신분의 계급적 좌절에서 오는 분노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이념보다 부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27] '핏줄로서의 아버지' 찾기는 『노을』의 전체 서사를 관류하는 의도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용기억의 밑면에 자리한 심층기억의 형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으며 당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되살려보는 것이라는 심층기억의 의미대로라면 2·4·6장이 소년 시점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생생히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심층기억의 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 행위 자체가 가진 상대성과 역동성을 감안할 때,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기억 주체로 설정된 성인 갑수의 잦은 개입은 심층기억의 진위를 불안하게 한다. 이를테면, 소년 갑수가 끌

27) 양진오, 앞의 글, 277면. 양진오는 소년 갑수가 부성을 발견하는 데 주목하는 이유가 반공주의 강압을 받아들이면서도 좌익을 악마적 타자로 귀결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이는 본고에서 서술한 통용기억화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상통한다.

려가다시피 들어간 봉화산 어귀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말미 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다.

> **그 눈길은 어느 누구의 눈길일 수가 없는, 아버지의 정다운 눈길이었다.** "니만은 이 애비를 나뿐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래이."
> (중략) **그러나 잠시 후 아니 내일, 아니 먼 훗날, 그때 내가 그를 욕하게 될지라도 지금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럴 수밖에 없다, 고 나는 마음 먹었다. 당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39면, 강조는 필자)

소년의 생각이 아니라 중년기에 접어든 작가의 목소리임이[28] 분명해 보이는 강조 부분은 이 글의 맥락대로라면 이미 성인 갑수의 통용기억으로 편입되어 각색된 감성적 서술에 해당한다. 부자간의 극적 화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핏줄로서의 아버지'를 정립시키고자 의도한 서술인 것이다. '빨갱이'라는 호칭의 문제 역시 앞 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통용기억화의 과정에서 해석될 수 있었는데, 소년의 시점에서 숨김없이 드러내어 오히려 성인 시점의 이데올로기적 방어기제로 삼는 기억 정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심층기억의 구체화된 언표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버지가 좌익 봉기에 앞장 선 이유가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장면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 "쪼매만 기다리바라. **너그들 실컨 배채아 줄 날이 조만간에**

28) 김윤식, 앞의 글, 1513~15면. 김윤식은 이 부분에 대해 작가의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노을』이 설파하는 것은 애초에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점이며 이는 핏줄의 물신화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꼭 올테니깐**. 개삼조도 한분 광땡이 잡을 날이 올 끼라." 아버지는 허풍을 텅 쳤다. 그러고는 우리들이 보라는 듯 등지게 주머니에서 머리를 뜯지도 않은 무궁화 담뱃갑을 척 꺼내었다.(37면)

> "갑수야, 인자 쪼매만 있어 바라. 이 애비가 구루마에다 쌀을 수십가마 져다 나를 테니까. 그라고 이런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는 안 살게 될 끼다. 짐삼조동무가 근사한 기와집에서 내보란 듯 띵까땅까하며 안 사능강 두고 바라. 물론 **니도 중학교에 턱 들어가서 사지 기지로 옷 한불 짜악 빼입게 될 끼고 말이다.**"(58면)

위 인용처럼 아버지에게는 신분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자식인 '너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고 '니'를 중학교에 보내고 싶은 자연적 욕망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용된 부분 외에도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한 기억의 소환과 재현이 소년 시점의 장에 고루 펼쳐져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드러난 기억의 밑면에 있는 심층기억은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 실마리는 소년 갑수가 반기억으로써의 '빨갱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포석되어 있던 사실에 있다.

소년 갑수 시점의 서사 초반, 아버지는 엄마가 부재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 대체되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버지의 폭력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던 엄마가 사라진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그 폭력성이 제어된 아버지뿐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의 폐쇄적 특질은 어린 형제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아버지를 수용하게 하고 세상과의 대결에서 그들을 보호해줄 방어막으로 여기게 한다. 읍내에서 '개삼조', '앓는 어금니'로 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없는 지금에 와서 이 등판이 갑득이와 내가 기댈 수 있

는 유일한 남의 살임을 믿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역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한 듯 행동을 교정한다. 매질을 견디다 못해 엄마와 누나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나와 갑득이한테 손찌검만은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날, 너그 형제만 없으모 내가 와 소도둑질은 몬 하겠노, 하고 펑펑' 울기도 한다. '너그들 실컨 배채아 줄 날'을 고대하고 백정답지 않다는 빈정거림을 들으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지극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변모한 아버지의 역할과 부성애를 발견한 갑수는 결핍 없는 가족의 완전한 형상을 꿈꾸게 된다. 아버지, '어무이하고 누부야'와 '굶어도 같이 사는 기 좋지, 떨어져서는 몬 사는 기라.'고 되뇌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좌익 봉기에 나서게 되면서 그러한 소망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자 갑수는 바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를 지켜내고자 한다. 그것은 엄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겨난 아버지에의 의존의 형태로 드러난다. 미창 벽에 붙은 좌익들의 글이 바로 아버지가 쓴 것임을 알게 된 뒤 갑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 아버지마저 삼돌이 삼촌이나 우출이 아저씨나 저 배도수씨처럼 우리 형제를 버리고 진영 땅을 떠난다면, 그렇게 되어 죽어 버리거나 감옥소에 갇히거나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우리 형제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는지에 대한 생각만이 크나큰 두려움으로 나를 슬픔 속에 내동댕이쳤다.(114면)

소년 갑수에게 아버지의 좌익 행위는 단지 그들 형제만 두고 떠났을 경우,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갑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좌익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한 헤어짐이다. 이를 시작으로 갑수의 가족애는 벽보판 사건 때문에 '빨갱이'들이 몇 붙잡히자 지서에 갇혔을지 모를 아버지를 생각하는 중에 한층 더 깊어진다.

>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아버지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싶었던 조금 전의 내 마음에 심한 갈등이 부딪쳐 옴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껏 분명 아버지를 증오해 왔었다. 그가 어디서 술이나 억상으로 마시고 개골창에라도 처박혀 뒈지기를 바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어디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있어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었던가.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기에 나를 매질해서 울리고 굶기는 데도 나는 그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하며, 언제까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가.(134면)

위의 인용은 갑수가 느끼는 가족애의 복합적 성격을 잘 설명한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본래 성품과 역할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심적인 배척의 상태에 있었으나 좌익 봉기에 연루되면서는 한 가족이라는 관성적인 의식이 아버지를 바깥 세계에 뺏기고 싶지 않은 무엇으로 자리하게 한다. 가족과 가족 밖의 것을 나누는 일종의 경계가 그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 경계 안에서 나는 제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경계를 넘어서는 즉시 그와 한패가 되고 바깥영역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위압적인 존재가 된다. 이 때 생성되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바깥 존재의 힘이 강할수록 더욱 크게 발현되어 '빨갱이 짓'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의미가 되기에 이른다. 뒤이은 '다만 나는 아버지를 빨갱이의 세계에서나 지서에서부터 빼내어 따뜻한 가정으로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갑수의 진술은 어린 아이의 순진무구한 시선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성인 갑수, 혹은 작가의 가족 중심적 사고를 읽게 하는 구문이기도 하다.[29] '빨갱이 세계'의 대립어가 '따뜻한 가정'일 수 있는 것은 아이 시선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7장에서 신이 '모델로 선택'한 '행복'한

29) 이 같은 작가의 가족 중심적 사고를 '방어적 가족주의'로 이를 수 있겠다.(김명희, 「한국의 정치변동과 가족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석사, 2009, 142면)

‘가정’을 지고한 이념인양 내세우고 있는 성인 갑수의 전지적 시선이기도 한 것이다. 귀향길에 대동한 아들 현구를 보며 자신의 어릴 적과 대비해 자식을 ‘구김살 없이’ 잘 길러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무하는 갑수의 잦은 진술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가족의 완전체를 꿈꾸며 ‘빨갱이 짓’을 가족의 해체와 동의어로 삼는 소년의 시점은 현실 사회의 억압 기제인 이념 대립을 무화시킬 유일한 도구로 가족을 설정하고 있는 성인 갑수 의식의 은유적 방식에 다름 아니다. 이 글에서 소년 갑수에게 그 사전적 의미에서 유추해 ‘애어른’이라는 모호한 중간자적 주체의 위치를 부여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기억 서사의 구성 방식이자 성장서사의 특징이기도 하겠는데, 이야기 하는 주체 곧 화자인 성인 주체의 의식을 거쳐 나온 서술은 어린 아이의 시점과 의식을 흉내 내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 『노을』의 갑수가 아주 어리지는 않은 만 열 네 살,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담금질에 노출되는 나이라는 점은 그의 의식 세계의 성장과 더불어 ‘애어른’일 수 있는 중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애착과 가족애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절정에 이른다.

> 윤주임이 굴렁쇠 안경을 밀어 올리며 각이 진 마른 장작개비를 집어들었다. 손에 퉤퉤 침을 뱉고 아버지의 알몸뚱이를 마구잡이로 내리치자, 당신의 몸에 금새 핏발이 돋기 시작했다.(중략) 그 때였다. 기수가 노랗게 질려 있는 내 얼굴을 새총을 겨누듯 손가락질했다. “아부지, 저 자석을 한분 혼찌검 내보이소. 절마도 누가 시켰는지 대강은 알고 있을낌더. (중략)” “옳거니. 이제 애비 대신에 니가 한분 죽어 봐라.” 윤주임의 핏발 선 눈이 내 눈을 찌르듯 달려들자, 누군가 뒤에서 내 반바지를 홀랑 까내렸다. 윤주임이 장작을 높이 치켜들었다.(136~137면)

소년 갑수가 한낮에 꾼 꿈의 내용으로 윤주임이 아버지를 때리다가 대신해 나를 때리기 직전이다. 여기서 '아버지 대신 나'라는 사실은 당시 이념 대립의 와중에 발생하고는 했던 대살(代殺)[30]의 반영이면서 아버지와의 정신적 동일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31] 바깥 세계에 속하는 윤주임의 몰매를 맞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대신해 매를 맞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꿈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 가족이라는 경계 안에서 소년이 느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뜻하며 이는 아버지에의 동일시이자 나아가 아버지 자리에의 무의식적 합일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갑수에게 일종의 자격 조건의 획득과 같으며 이 때문에 곧 아버지가 가진 것을 공유하거나 탈취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이 아버지 자리를 탈취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되며 아이러니

3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274~6면. 전면전이 발생하기 전, 이미 제주 4·3항쟁 당시의 초토화작전이나 전쟁 중 부역자 처벌의 과정에서도 "빨갱이와 한 가족인 한 빨갱이로 취급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고 아래 좌익은 물론 그 가족과 친척까지 학살당한 많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남북한 당국, 좌익과 우익이 각각 상대를 없앨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전통적 가족 공동체를 모델로 성립시킨 민족의 개념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가족개념은 혈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가장 중심의 위계적 질서는 가족관계의 본질이다. 가족 내의 개인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들의 일이고, 남편의 일은 아내의 일이다. 이승만의 학살 논리 역시 반란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한 사람의 반란 행동에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는 가족주의 논리와 같은 궤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80년까지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지속된다.

31) 프로이트, 김석희 역,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114~129면 참조. 프로이트에 따르면 동일시란 타인과의 감정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데, 남자아이가 아버지처럼 되어서 그를 대신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발현된다. 동일시의 감정은 양가적이어서 애정 표현으로 표출되거나 제거하고 싶은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후 대상이 사라지면서 자아 속에 다시 확립되고 자아는 그 대상을 모델로 삼아 부분적으로 변화한다. 갑수의 경우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배척되고 갑수는 한층 성장한다.

하게도 이 때 아버지는 가족에서 제외된다. 가족의 와해를 막고 온전한 보위를 위해 아버지를 원했던 소년의 바람은 이제 역전되어 가족의 보전을 위해 아버지를 배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봉화산에서 사나흘 빨치산 생활이 끝날 무렵, 자식을 이북으로 데려가려는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갑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어무이가 지서에 갇혀 있는데 내가 우째 아부지하고 같이 갑니껴? 갑득이도, 실성한 또출이할무이도 내삐리고 우째 갈 수 있읍니껴, (중략)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은 조금 안됐지만 아버지 한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 읍내의 모든 사람과 헤어질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251면)

아버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면서 지금까지 갑수가 가지고 있던 가족 경계의 의미는 새롭게 조정된다. 그동안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아버지가 바깥의 세계에 완전하게 편입되고 가족은 아버지를 뺀 나머지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읍내의 모든 사람'과 대비될 만큼 아버지의 존재감은 가족의 자리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 소년은 한선생의 주소를 들고 부산으로 떠날 때 되뇐 다음의 다짐에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야만 하는 자기의 상황을 깨닫고 가족을 보위하기 위해 자기를 연명해야 하는 역설적 수난의 인식을 고백한다.

> 그러나 나는 정말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세게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어머니와 동생과 누나를 되찾아 우리 식구가 한솥밥을 먹어야 하다는 결심이 오히려 나를 쉴틈없이 울리며 떨리는 어금니를 앙다물게 했던 것이다.(184면)

이로써 소년과 가족의 관계는 '자기 보전을 위한 가족 구원'과 '가족 보위를 위한 자기 연명'으로 정리된다. 가족이라는 정상적 울

타리 안에서 살고 싶기에 구원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나' 자신이 살아남아야 '나'를 포함해 남은 가족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32] 이는 단순히 장자의 입장에서 부재하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자기 연명' 안에는 '가족을 위한 자기 죽이기'라는 함의가 들어 있기 때문이며 결국 그 같은 소년의 꿈은 가족이라는 집단만이 남는 허무로 귀결되지 않는 이상 가족과 자신의 동일시를 이룸으로써 겨우 살아남는 그야말로 '연명'의 선에서 해소될 것이다. 그 때, '나'와 가족은 분리되지 못할 일체의 것이며 가족이라는 집단은 바깥 세계의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할 절대항으로 묶인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수는 임기응변적 통용기억화의 과정 속에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이며 그것은 은연중에 현실 세계의 가족으로 대체되어 현시된다. 물론 여기서 갑수는 소년 갑수이자 성인 갑수이다. 따라서 이를, 갑수의 절대적이자 배타적(바깥 세계와 아버지에 대해) 가족애를 심층기억의 한 형상으로 보고자 한다.[33]

32) 이 같은 소년의 절박함은 안팎에서 아버지로 칭할 어떤 것도 없는 사회적 현실에서 기인하며 가족의 절대성은 국가와 사회의 부재로 더욱 강화된다. 전후소설 속 현실을 '무사회적 상황'으로 이르는 권명아는 전후에 생산된 텍스트들 속에서는 가족이 훼손된 전체를 재조직화하는 상상적 준거로 상정되며 척박한 사회에서 '유일한 위안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무사회적 고립자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상상하는 준거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00, 책세상, 32~33면 참조)

33) 맥락에서 보다시피 이 심층기억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통용기억의 대립 관계로써의 의미도 있지만 갑수의 혹은 가족의 훼손을 경험한 작가의 의식 깊이 자리한 원초적 욕망으로도 볼 수 있겠다.

## 4. 새아버지 추대에 의한 심층기억과 통용기억 간 길항

『노을』의 서사 초반에는 갑수가 자기 가족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삽입되어 있다. 갑수와 지금의 아내가 결혼 직전에 서로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고백한 뒤, '서로의 가족이 당한 불행이 결코 먼 거리가 아님을 알았'고 '그 고백이 둘을 더욱 다숩게 싸안'음으로써 더 애틋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갑수와 아내는 '지난 늦봄' 집을 샀고 현구를 포함해 삼남매를 두었으며 갑수가 출판사 편집부장직에 있어서 '중산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비록 어머니가 병중에 있기는 하지만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내의 말로 하자면 갑수 '뒤에 줄줄이 엮인 가족'이 있고 갑수는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실한 소시민'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갑수의 아버지는 어떠했는가. '재작년' 형사들의 방문을 받은 뒤 갑수가 먼저 떠올린 것은 그 같은 '건실한 소시민'에 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 배코로 빡빡 민 빤질머리에 찢어진 큰 눈, 늘 광기가 떠도는 그 눈으로 히히덕대며 쏘다니던 아버지. 엄마가 남의 집 품을 팔아 얻어 온 양식까지 술로 바꿔 먹던 아버지. 소를 사러 타 지방으로 떠나거나 노름판에 붙어앉았다 하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집을 비우던 아버지. 그러면 몇 해를 지붕의 이엉도 못 이어 내려앉은 골마다 억새풀이 무성한 움집 속에서 처자식이 굶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염두에도 없던 아버지.(80면)

갑수는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본분에 비춰 한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능력을 기억한다. 어린 갑수 역시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기란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고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식으로부터 존경 따위는 일찍이 엿사먹고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더군다나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는 한의 본질이었고 골수에 맺힌 원수였다.' 그에 비해 '나'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있고 '내세워 자랑할 만한 아버지는 못되지만' '건강하고 구김살 없이 기르는 아버지 노릇 정도는 하고 있'어서 '소시민적인 자기 만족'으로 '어깨의 힘'이 솟는 사람이다. 갑수에게 가족은 이처럼 스스로 하여금 가족적인 이상적 자아를 설정하게 하고 수시로 자각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드높일 수 있는 절대항이다.[34] 거기서 '나'는 가족을 보위하는 하나의 부속으로 남고 단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로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서사의 첫머리에서 '금일삼촌별세급하향'이라는 전보를 받고 갑수가 느끼는 '묵은 괴로움의 응어리가 삭아 없어지는 쓸쓸함'의 감정은 이와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전보는 탈적(脫籍)의 의미와도 같다. 고향의 기억은 갑수가 일군 현재 가족의 안위에 대비하여 팽팽한 긴장감으로 늘 존재했던 과거 가족의 흔적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고향에서 올라온 삼촌의 죽음 소식은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마지막 혈육의 죽음이면서 불편했던 연결고리가 끊기는 결과와 같기에 위의 감정과 함께 '개운함'과 '달콤함에 가까운 홀가분함'을 느낀다. 탈적에서 오는 쓸쓸함이자 개운함, 홀가분함인 것이다. 형사들의 방문을 받고 난 그날 밤, 막내 아들 현우의 얼굴을

34)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나르시시즘 서론」,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45~85면 참조. 생명체가 보유한 자기보존본능이라는 이기주의를 리비도가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 나르시시즘이다. 자아의 발달은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멀어져야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시 원래의 나르시시즘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한 욕구를 낳게 된다. 근원적 나르시시즘에서의 이탈은 외부에서 강요된 자아 이상으로 리비도가 재배치되어야 가능하며 만족은 이상적 자아의 실현을 통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앞장에서 밝혔듯이 갑수는 가족과 동일시 상태를 심층기억으로 갖고 있다. 그에게 이상적 자아는 가족을 보위하는 자로서의 자신이다.

보며 느끼는 감정도 이와 관련된다.

> 잠을 자는 현우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아니, 본 적이 없는 천사가 아니라 평화의 작은 실체였다. 그런데 내 눈에 현우가 갑자기 한 마리 가련한 병아리 같게만 보였다. 저 어린 것을 두고 내가 잡혀간다면. 아, 그렇게 되어 만약 몇 해고 저애를 못 보게 된다면, 내 새끼 세 마리는 다시 아버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80면)

형사들에게 잡혀갈 시 '내 새끼 세 마리'가 겪을 불행한 상황이 부모의 부재로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에 비견되고 있다. 이처럼 갑수 과거의 가족은 현재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고 그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의 준거가 된다. 이 때문에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한데, 실제 혈연적 관계는 삼촌의 장례와 함께 정리되는 듯하지만 갑수의 의식에서까지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더욱 또렷한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다 특히 그 와중에 현구를 대동한 내면의 소이는 나아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후 현구를 낳고 자신이 아버지됨을 경험한 뒤 갑수는 그제야 죽은 아버지의 제사를 모심으로써 그 자리의 결손을 상징적으로나마 채워 넣고 있었다. 정작 갑수는 현구를 대동한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태가 된 것만은 사실이'고 현구는 그 고향에 뻗은 '나'의 '뿌리'를 이어받아 가족의 존속을 이끌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 끝에서 '현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고향'이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다시 오고 싶은 고향일 수도 있으리라.' 믿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결말에 가서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갑수의 가족애가 모든 갈등을 무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의 가족과 결별해야만 현재 가족의 안위가 보호될 상황임에도 결국 고향을 찾듯 아버지의 자리를 복원하고 있는 갑수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엮여있다.

먼저, 앞서 설명한 심층기억의 실체와 통용기억화의 과정에서 얻은 최종적 형상 간 관계에 대해 보아야 한다. 실상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억이 정치적 사회적 수용 여부에 따라 나뉘어 나타나는 것이 심층기억과 통용기억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밝힌 갑수의 심층기억은 통용기억화의 과정에서 억압된 '빨갱이' 아버지의 기억보다 더 심층에 있는 것으로써 자신과의 동일시에 가까운 가족애였다. 이를 근원으로 삼는 갑수의 성장과정에서 가족을 와해시키려는 안팎의 위협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논리를 무기 삼아 배제된다. 소년의 가족은 '빨갱이' 아버지를 배제하고 스스로 대체제가 됨으로써 이루어졌고 성인의 가족은 '핏줄로서의 아버지'라는 호명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은 동시에 현재의 가족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심층기억의 의미를 사회적 구속력에 장악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확장했을 때 짐작건대 작가는 갑수의 가족애를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갑수의 가족애는 작가 의지의 상상적 재현이면서 작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에 해당한다.[35] 그러나 그것을 통해 모든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으려던

35)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의 지엽적 형태로 종교 ISA, 교육 ISA에 이어 가족 ISA를 거론한다. 그 외에 법ISA, 정치ISA, 문화ISA 등이 있는데 여러 지엽적 이데올로기의 통합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됨으로써 보장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루이 알튀세르, 이진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 백의, 1992, 170면) 박찬부는 라캉과 알튀세르의 주체론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상질서에 관해 다루면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현실적 삶에서 인간은 실제 그 자체와 관계를 맺지 않고/못하고 그것이 '투여된' 상상적 관계를 살아간다.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리얼리티 그 자체를 논하지 않고 어떤 의지, 희망, 노스탤지어를 표현한다. 이것이 알튀세르가 말하는 재현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삶의 모습이다. …… 어떤 리얼리티가 '기존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재현 과정을

갑수의 의지는 결국 가족을 보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기 삼음으로써 가족애 자체의 가치 몰락을 야기한다. 이는 노인 배도수가 부여받은 가치의 비중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배도수는 과거 진영의 좌익 봉기를 이끌고 아버지의 백정 신분에서 비롯된 분노를 봉기에 적극 활용했던 인물로 당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전향 후 다시 한국에 나와 선대가 남긴 과수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어린 갑수가 봤던 '예전 배도수씨에 비해 실로 놀라운 변화'라 할 만큼 지금 그의 이미지는 '고결한 어떤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도무지 때묻은 생활의 티끌이 느껴지지 않'고 '향토에 대한 애착과 이세 교육에 몸바쳐 온 청빈한 시골 중학교의 교장티가 그대로' 난다.[36] 갑수가 고향을 떠나기 전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처럼 고결한 느낌의 배도수는 과거 사건으로 상처 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산다며 사과하고 뒤이어 갑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통해 현상계에 드러난다는 것은 프로이트의 꿈의 이론 (중략)과 흡사하다. 우리는 이 재현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 행위를 통해 본래의 리얼리티에 닿을 수 있다. 이 해석 과정에는 '신은 실제 왕의 상상적 재현이다'와 같은 기계적 유형과 '신은 실제 인간의 본질이다'와 같은 해석학적 유형이 있다."(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지성사, 2006, 177~181면) 이 같은 박찬부의 설명을 빌렸을 때, 김원일의 작가로서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을 가족애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분단문학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설들, 이를테면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3), 『아우라지로 가는 길』(1996), 『가족』(2000) 등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서도 한 개인을 구원할 궁극의 보루는 바로 가족이다.

36) 김한식은 배도수의 품위있는 행동에 대해 전향이 주는 편안함 혹은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며 과거에 대한 회환과 반성 그리고 현재의 조용한 삶은 좌익 활동을 젊은 시절 한때 철없이 빠졌던 충동적인 사건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기억하는 과거 역시 이념과는 거리가 먼 광기의 시절이 되며 이 때문에 『노을』이 반공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김한식, 「사실의 의지와 이념의 불만」, 『현대문학사와 민족이라는 이념』, 소명출판, 2009, 270면) 김태현은 배도수의 전향을 환영하는 갑수 태도의 문제점 외에도 여러 서술 방식을 언급하며 『노을』이 훌륭한 반공문학의 품위를 지녔다고까지 설명한다.(김태현, 앞의 글, 89~104면 참조)

> 한 쌍의 다정한 비둘기 같은 이 초로의 부부가 늦게나마 행복을 되찾은 데 대해 나는 이제 부러워하거나 시샘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48년의 폭동으로 하여 이면 편에 의해서든 저면 편에 의해서든 죽거나 헤어진 상태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고향 사람들, 지울 수 없는 그 시절의 상처를 제가끔 안고 사는 그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신은 오직 이 한 가정을 모델로 선택하여 만남을 베풀었다고 나는 믿고 싶었다.(254면)

갑수는 '설움이나 괴로움 같은 것을' 가지고 청빈하게 과거를 사죄하며 사는 배도수와의 만남으로 고향에서의 모든 상처가 씻겼다는 듯 자위한다. 배도수의 사죄로 갑수 아버지가 '빨갱이'로서 저질렀던 행위들도 같이 용서되며 그로써 '핏줄로서의' 아버지 복원은 더 자연스러워진 듯하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읽히는 것은 이와는 다른 형상이다. 바로 갑수의 여전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발적 신봉과 가족애에 대한 믿음 간의 상충이 존재하는 것이다. 배도수는 소년 갑수가 '빨갱이'라는 이유로 지극한 혐오감을 드러내 보이며 가족의 경계에서 밀어냈던 '빨갱이' 아버지의 이상형이었으나 이제 성인 갑수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신'의 선택이라는 과장된 의미까지 부여받으며 이산의 아픔을 지닌 가족 모두의 염원을 체현한 이상적 인물로 변모하고 있다. 갑수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적 전형이 배도수의 현재 삶에 현시됨으로써 배도수는 갑수의 상징적 아버지가 되고 갑수의 아버지는 다시 한 번 그의 자리를 잃는다.[37] 억압의 표상인 '빨갱

37) 갑수의 이 같은 무의식적 과정은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가족 로맨스'의 과정과 거의 같다. 갑수는 비천한 아버지를 고귀한 아버지(배도수, 지배이데올로기)로 대체하고 있다. 가족 로맨스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같은 환상의 목적이 실제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아버지 추앙은 김원일의 향후 작업 속에서 계속되는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을』의 갑수는 여전히 애어른인 듯하다.(프로이트, 김정일 역, 「가족 로맨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199~202면 참조)

이'가 '전향'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행위를 통해 거기서 멀어짐으로써 갑수의 가족 경계 안으로 재진입하고 있는 것이다.[38] '전향'에는 갑수가 아버지의 복원을 위해 시도했던 통용적 자리바꿈의 형상보다 더 강한 진입에의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다. 자리바꿈이 원래의 실체를 은폐한다면 '전향'은 원래의 형상이 성격만을 달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한 쌍의 다정한 비둘기' 같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경우의 예가 전형적으로 갑수의 가족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가족애와 그 존위를 압도하는 순간의 사례로써 충분해 보인다. 가족애를 절대적인 것으로 상상하게 한 근원적 결여에 대한 의식 없이 갑수는 다시 거기에 안착해있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 5. 결론

갑수의 귀향은 아버지의 기억을 회복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갑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상황에서 통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 소환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반기억, 곧 현재 사회로부터 망각을 강요받는 아버지의 표상이 충실하게 그려지

38)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억압에 관하여」,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142면 참조. 억압이라는 것이 원초적으로 억압된 표상의 〈모든〉 파생자들을 다 의식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파생자들이 억압된 표상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파생자들은 자유롭게 의식에 접근할 수가 있다. 정신분석자들은 환자에게 의식의 검열을 통과한 그런 억압된 표상의 파생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억압된 표상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변형된 파생자인 것이다.

지만 그 밑면에 자리한 심층기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지배이념에 압도된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의 유약함이다. 결국 '핏줄로서의' 아버지는 소환되었을 뿐 복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작 복원된 것은 아버지의 자리일 뿐이다. 그나마 갑수에게 다행인 것은 '빨갱이' 아닌 것으로서의 귀환은 역설적이게도 '빨갱이'를 흔적으로 간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빨갱이'이며 '핏줄로서의' 아버지로 호명됐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갑수는 이를 아들 현구에게 넘기고 있다. 배도수의 과수원에서 나오며 멋모르는 갑수의 아들 현구가 여기 '과수원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곳이 고향이길 원할 때 그것을 허락하는 형태의 대화를 하는 이가 배도수의 처 조씨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로써 현구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들었고 동시에 배도수로 환언되는 아버지의 고향을 알게 된 것이다. 현구가 실제로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다시 오고 싶은 고향'으로 느낄 날은 그 양립의 도식을 구한 이후가 될 것이다. 더불어 여기서 갑수의 주체적 위치도 분명해진다. '나'는 아들 현구에게 아버지와 고향에 관련한 기억 중 일부를 골라 떠넘기고 있다.[39] 기억해야 할 것과 망각해도 좋을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갑수는 이중달의 아들 치모의 지적처럼 그것들과의 본격적인 대면을 회피하고 거리를 두려 한다. 가족 외부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 극히 방어적으로 일관했던 그의 태도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자발적 순종을 통한 가족 보위에 이른다. 따라서 이 같은 내림의 방식은 가족을 유

39) 특히 할아버지가 백정의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현구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주아의 분석처럼 '인간 백정'으로서 무차별한 살인을 일삼았던 아버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 백정의 신분을 감췄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수 본인이 가족을 보위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신분 상승을 이뤘고 이는 현구에게 물려줄 가족의 신분이 갑수의 위치에서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백정 신분에 대해 전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 계승하기 위한 적극적 전달이기보다 단지 세대 사이에 끼인 중간자적 존재로서 의무의 완수만을 고려한 소극적 전달에 가깝다. 이는 작가 개인의 소설사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유추하게 하는 지점이다. 작가는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문학적 복원을 위한 여정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기억은 억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노을』에서 통용기억화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현실적 압박과의 중재를 시도하고 아버지의 복원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가는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아버지 세대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치모처럼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물형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시도한다. 이후에 발표되는 『불의 제전』과 『환멸을 찾아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김원일, 「노을」, 『제삼세대한국문학6. 김원일』, 삼성출판사, 1983.

### 2. 참고논저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00, 책세상.

권오룡, 「개인의 성장과 역사의 공동체화」,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 200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명희, 「한국의 정치변동과 가족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석사, 2009.

김병익, 「비극의 각성과 수용」, 『제삼세대한국문학6. 김원일』, 삼성출판사, 1983.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6』,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김윤식, 「문학사적 개입과 논리적 개입」, 『문학과 사회』 겨울호, 문학과 지성사, 1991.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태현, 「반공문학의 양상」, 『그리움의 비평』, 민음사, 1991.

김한식, 「사실의 의지와 이념의 불만」, 『현대문학사와 민족이라는 이념』, 소명출판, 2009.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지성사, 2006.

박찬효, 「김원일의 『노을』에 나타난 '죽은' 아버지의 귀환과 이중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오생근, 「분단문학의 확장과 현실 인식의 심화」,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 2002.

양진오, 「좌익의 인간화, 그 문학적 방식과 의미」, 『우리말글35』, 우리말글학회, 2005.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상력』, 태학사, 1999.

정재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박사, 2006.

정주아,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기억 방식 연구」, 서울대석사, 2005.

정호웅, 「분단 극복의 새로운 넘어섬을 위하여」,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최영자, 「권력담론 희생자로서의 아버지 복원하기」, 『우리문학연구34』, 우리문학회, 2011.

홍정선, 「기억의 굴레를 벗는 통과 제의」,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 2002.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Lawrence L. Langer, *Holocaust Testimonies-The ruins of Memory*, Yale University Press, 1991.

루이 알튀세르, 이진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 백의, 1992.

프로이트 지그문트, 김명희 역, 『늑대인간』, 열린책들, 1996.

_____, 이한우 역,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은폐 기억들」,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 열린책들, 2003.

_____, 김석희 역,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_____, 윤희기·박찬부 역, 「나르시시즘 서론」, 「억압에 관하여」,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_____, 김정일 역, 「가족 로맨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Abstract>**

# Double-sided summons of divided memory and family composition —Focused on Kim Won Il's 『An Evening Glow』—

Ma, Hye-Jeong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dual memory level shown in the image construction of the family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divided memory by focusing on Kim Won Il's 『An Evening Glow』. Using the boy's point of view in 『An Evening Glow』, the author attempts to summon the father and restore the father's name in the narrative current space by separating blood relations and ideology. During this process, the boy speaker transforms memory of his father in a form which can be common in the current situation. Statements only by the boy speaker, such as "red and butcher", "loving freedom" "a brother" which is "a communist", and the father as a "blood relative" are applicable. Chapters 2,4,6, which is undertaken in the boy's point of view, is an image construction as a method for showing common memory. If so, we must find the deep memory form

positioned in the bottom in another place. Here, it seems that the clue is already laid out before the boy Gapsu discovered his 'Red' father. The boy Gapsu dreams of a perfect family and the 'Red actions' is made as a synonym for family break up. This kind of boy's point of view can be a gentle method of the adult Gapsu's conscious that sets up the family as the only tool that nihilates ideological conflict, which is a repressing mechanism of real society. However, Gapsu's will, which tries to overcome all real problems through family affection, brings about the value collapse of family affection by making the self dominant ideology for protecting the family as a weapon. This is supported according to the value weighting granted to the elderly Bae Do Soo. It is granted up to the exaggerated meaning of god's selection according to the self will of the adult Gapsu, and it transforms all the greatest wishes of the family who have experienced the pain of separation into an ideal personified character. Bae Do Soo becomes the symbolic father to Gapsu as Bae Do Soo's current life displays the model family desperately wanted by Gapsu and Gapsu's father again loses his place. Consequently, the 'blood relation' father is only summoned and we cannot say that it is restored. In reality, only the father's place is restored.

Key words: Kim Won Il, 『An Evening Glow』, divided memory, family,

family affection, common memory, deep memory

투 고 일 : 2017년 4월 20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